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1-44호)

마이다스플러스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11년 01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1-06
펀드 규모	27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34%
환매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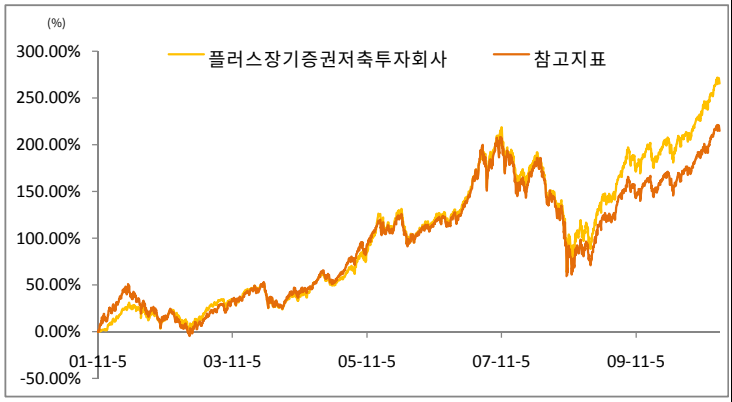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플러스장기증권투자회사	1.91%	10.15%	18.13%	28.74%	265.52%
참고지표	0.79%	7.75%	13.85%	23.13%	214.84%
초과수익률	1.12%	2.39%	4.28%	5.61%	50.68%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1.05~2011.01.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1.91%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0.79% 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양호했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IT, 화학 등 펀드내 편입비중이 높았던 업종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 펀드내 편입비중이 낮은 통신, 전기가스, 유통 업종 등이 저조한 주가흐름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황 및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편입했던 ,GS, SKC, 하이닉스 등이 1월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지난 1월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기대 수혜업종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월은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발표가 집중되었으나 예상외로 지수상승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신규고용이 늘어나며,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수출업종과 화학, 건설, 조선, 보험 등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혜업종, 그리고 금리인상의 영향이 부각된 보험업종 등이 주목 받았습니다. 지수는 은행, 증권, 통신, 전기가스, 유통, 철강 등 업종이 부진하면서 0.9%의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업종 및 종목별 수익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OSPI가 2,000pt에 안착하는 가운데 미국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에 수혜업종인 전기전자, 화학, 건설, 조선, 보험 등 업종이 상승을 보였고, 은행, 의약품, 통신업, 전기가스, 기계, 유통, 철강 등 업종이 지수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펀드에서 주식편입비율은 80%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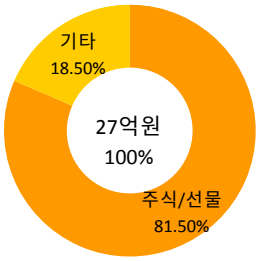
지난달은 SKC, 두산중공업, 동국제강, 현대제철, 대우인터네셔널, 현대그린푸드, 현대해상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KT, 세아베스틸, 효성, 코오롱인더, LIG손해보험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하이닉스, 한화케미칼, 카프로, GS, S-Oil,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웅진코웨이, 효성, POSCO, 현대모비스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75.5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1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75.52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어 1월물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소폭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2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90.0 를 매도하였으며, 2월 만기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01.31기준]



상위보유종목

[2010.11.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7.55%)

삼성전자	11.15
기아차	3.63
현대차	3.44
LG화학	2.96
LG	2.93
현대모비스	2.88
기업은행	2.71
하이닉스	2.65
현대중공업	2.60
S-Oil	2.60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